

이제 톡으로 확인...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 실시간 알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던 처리 지연, 환불 등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기 어려운 가구·가전·매트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을 말한다.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이원화된 온라인(민간 앱 '빼기' 및 구청 누리집)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폐기물 수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민간 앱 사용 시 취소와 환불이 안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신청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은 업체가 현장에서 수거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배출자에게 수거 완료 여부가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배출 물품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미수거 결과와 함께 환불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와 환불 역시 누리집에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의 배출·수거 지도를 적용해 업체가 처리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신청받은 폐기물 목록을 자동 연동해 효율적인 수거 동선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는 신속한 폐기물 수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울리 구는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창구'를 구청 누리집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민간 플랫폼 '빼기' 운영은 중단한다.

이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어디서나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와 환불 역시 누리집에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양천구, '마을버스 BIT, 온열의자' 관리체계 개선 주민불편 신속대응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BIT)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버스정류소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정보안내단말기 총 55대(구 설치 42대, 기존 조합 설치 13대)의 운영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도착정보의 정확도와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13대의 마을버스 BIT는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 간 협약을 통해 마을버스 조합이 설치·운영해왔으나 노후 장비 교체 및 고장 대응 등이 지연되며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구는 마을버스 조합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13대를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노후화 및 고장 등이 있는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주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198개소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온열의자 작동여부 점검을 완료하고, 연내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되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온열의자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되고 온도, 운영시간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밤이자 일상으로 작은 불편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해 버스정류소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